

뉴멕시코주
한인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1월호
2012

뉴멕시코 주 한인회 소식

새해 한인회장 인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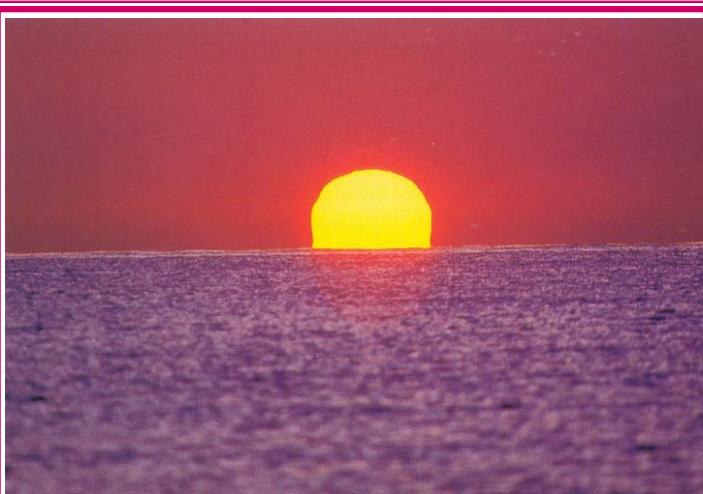
뉴멕시코주 한인 여러분 임진년 새해 인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가정과 기업이 번창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한인회에 너무 많은 격려와 후원, 사랑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저와 함께 수고해 주신 한인회 임원님들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광야의소리'를 발간함에 있어 저희 한인회와 늘 함께 걸음을 해 주시면서 한인사회의 소통을 이끌어 주신 감리교 회목사님과 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 행사를마다 봉사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신 교민여러분들의 사랑을 힘입어 새해에는 저희 임원들이 한마음으로 더욱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한해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오랫동안 염원하고 준비해 오던 뉴멕시코주 한인총람을 마무리하게 된 것을 무엇보다 교민 여러분들과 기뻐하고 싶습니다. 한인사회가 더 결집력있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줄로 믿고 총람 배부는 한인회에서 논의한 대로 교민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타주 어느 주보다 더 화목하고 건강한 뉴멕시코주가 되는데 크게 기여하는 한 해, 한인회 역사에 길이 남는 2012년이 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하여 더욱 전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새해 인사 올립니다.

총람배부

25년간의 한인회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뉴멕시코주 한인총람이 발간되었습니다. 두 가지 표지 디자인으로 제작되었는데 교민들에게는 원편 디자인으로, 타주 한인회로는 우리 주를 소개할 목적으로 오른편 디자인으로 발송할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분들조차도 뉴멕시코주를 멕시코의 한부분인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뉴멕시코 주 한인회 소식 -1

한인사회소식 -3

1월 뉴멕시코 교역자 협의회 -4

-에세이- 한우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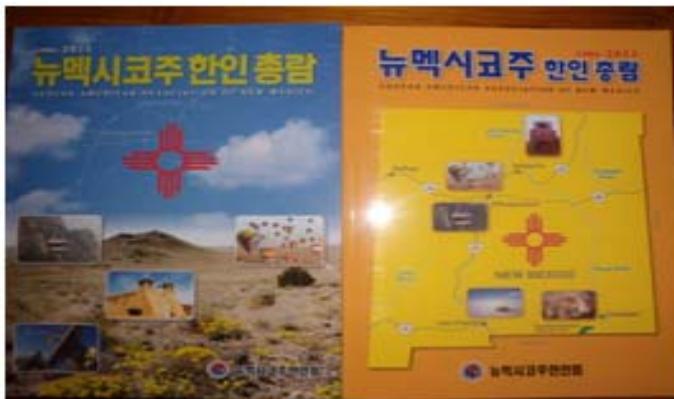
흰 쌀밥 과 잡곡 밥 -6

어떻게 섬길 것인가! -10

현대자동차 엘란트라 -12

콩코드 종이비행기 -13

서 뉴멕시코의 위치가 그려진 지도와 유명 관광지를 실었습니다.



특별히 총람에 광고를 실으시고 광고비로 후원하신 광고주 분들과 후원금으로 도와 주신 정풍자, 신광순, 이경화, 김준호, 박순삼, 김재권 전임 회장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14,890,83의 비용으로 총148페이지 1,200부를 한국에서 인쇄했고 한권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운송료 제외 \$12.50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드렸으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한인회에서는 여러가지를 감안하여 오랜 시간 의논한 끝에 배부 기준을 한인회원으로 등록된 분들에게 무료로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한인회원등록은 매년 개인 30불, 부부 40불의 회비를 받습니다. 한인 회관에 비치된 한인회원 가입서를 작성하시고 한인회원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회원 가입을 원치 않으시는 분은 자유롭게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한인총람은 매년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25년만에 처음 발행된 것이고 또한 앞으로 몇년간은 이와 같은 규모의 책을 만들기 어려운 것이 실정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저희 뉴멕시코주 한인회의 홍보와 발전을 위해 크게 기부하신다는 마음으로 협조를 보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한인회관을 중심으로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적으로 또 다가오는 대보름날에 한인회관에서 대보름 행사를 통하여서도 배부할 계획이니 이와 관련한 질의사항이 있으신 단체장이나 개인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어버이회소식

1/11/2012부터 매주(수)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한국학교 소식

1월 21일 토요일 개강했고 계속해서 등록 받습니다. 웹 사이트 www.kaanm.com에 들어가면 자세한 사항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문의: 이선아교장 505-515-4211)

대보름의 날

2/4/2012(토) 5시대보름 저녁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한인총람 배포와 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합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세요.



주최: 뉴멕시코주한인회

대보름의 날

교민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일시: 2월 4일(토) 5pm

장소: 한인회관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Menaul/Eastbank NW Corner)

Tel: (505) 271-1777 www.kaanm.com

'한인총람' 소개 (공로자 소개 및 감사)
보름음식, 사물놀이, 노래자랑/장기자랑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한복 착용을 권합니다. (단체사진)

(후원: 김스마켓, 아리랑마켓, A-1마켓)

광야의 소리는

매달 5일에 원고를 마감합니다.
원고나 뉴멕시코주 소식에 관한 기사를 보내시거나
광고를 요청하실 분은 마감 전까지
권구자 부장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도네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흑백: 1/8 페이지-\$20, 1/4 페이지-\$40
칼라: 1/8 페이지-\$35, 1/4 페이지-\$70, 1/2 페이지-\$200

담당Contact: 권구자 Kucha Choy 505-553-1009,
voiceofnm@gmail.com

편집위원: 이철수, 김채원, Joshua shin

§ Voice in the Wilderness §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역대회장모임

지난 12월13일에 고문이사회(역대회장모임)이 있었습니다. 2012년 한해 한인회를 보좌하고 이끌어감에 있어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함과 더불어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웹사이트 소개

[Http://www.kaanm.com](http://www.kaanm.com) 다양한 정보와 한인회/한인사회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한인 여러분들의 웹사이트 방문을 기다립니다. 한인회의 활동사항이나 그 달의 행사 및 재정내역들을 보실 수 있고 특히 뉴멕시코주 한인회보(광야의 소리)를 웹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각 한인 마켓이나 각교회,한인회관에서 매월 직접 받아보실 수도 있음)

한인사회소식

뉴멕시코 한인 상공 회의소

2011년 12월 18일 뉴멕시코 한인 상공 회의소 회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김철씨가 초대 회장이 되셨습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 소식

지난 1월 15일 창립 3주년을 맞이하여 장로장립(박달규) 및 집사임직(15명)을 하였습니다.

동해 병기 청원서

동해 병기 청원서(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에 대한 반대 서명)에 교민분들의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서명지는 각교회, 한인마켓, 한인회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한인회 웹사이트 광고주를 모집

한인회 웹사이트에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고 신청바랍니다. ([Http://www.kaanm.com](http://www.kaanm.com))

Teriyaki kitchen 개업

소개합니다: 한인회 봉사부장 김진화씨가 운영하는 Teriyaki kitchen (T:766-9405)이 성업중입니다 주소는 508 Central Ave. SW 87102, 영업시간은 11a.m-3p.m 이고 오후 1시 이후에 가시면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USA Legal Group, Inc.

A Law Corporation

상해법, 교통사고, 파산법 전문 변호사



Los Alamos 와 Albuquerque 인근에 산불로 인해 ash 가 집 혹은 건물로 날아들어 왔을때 compensation 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직까지도 보험회사로 부터 Los Alamos 산불이나 Arizona 산불의 연기와 재로 인한 피해보상 비용을 받지 못하셨거나 deny 되셨나요?

대부분의 화재보험은 외부지역에서의 재나 연기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clean-up cost이나 replacement cost 를 책임지고 배상해야 합니다.

New Mexico Attorney: Charles Lakins

Donovan Kang(도노반 강): 사무실Office 505-563-5538

직통Direct 505-563-5539

1월 뉴멕시코 교역자 협의회

-메세지-

한우

이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내 전공은 수의학이다. 사전에는 가축질병의 치료 및 위생 · 사육 · 관리 · 경영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쓰여있는데, 내가 이 전공을 택할 때만해도 수

의학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하기는 지금도 이 학문을 전공한 사람 이외에는 그 분야가 얼마나 넓고, 연구의 대상동물이 얼마나 여러 가지인가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일상생활 중에 흔히 볼 수 있는 모든 동물의 질병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축질병이 아니라 동물질병으로 사전의 정의도 바뀌어야 할 만큼 수의학전공자들의 역할이 다양해졌다.

시골의 우리 집 담 안에서는 소 · 돼지 · 개 · 고양이 · 닭이 함께 살았다. 농사짓는 데에 소는 없어서는 아니 되는 가축이었고, 돼지는 큰 잔치에 요진하게 쓰였으며, 닭은 손님 접대나 생일상 차리기에 알맞았다. 친한 사람의 집에서 젖떼기 때 얄어다가 기르고는 하던 개는 가족이 모두 일 나간 사이 집 지키는 일을 맡았다. 집집마다 마당 한 쪐에 벗짚 단이나 간벌한 소나무 단을 차곡차곡 쌓아두고 떨감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여러 해묵은 떨나무비늘에는 흔히 도둑고양이들이 새끼 치는 동지가 있었다. 그때만해도 고양이는 어디서 사울 수도 얄어울 수도 없어서 도둑고양이의 새끼를 몰래 훔쳐다가 끓어두고 길들였다.

다른 너석들은 팬찮았으나 돼지와 고양이는 이따금 찾아오는 질병으로 앓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 밖으로 나와 마당을 거닐며 꿀꿀거리던 새끼돼지들이 갑자기 힘이 빠지고 눈곱이 끼면서 뒷다리를 배배 꼬는가 하면 한쪽으로 뱅뱅 돌았다. 귀밑을 만져보면 열이 높고, 배꼽언저리에 자줏빛 반점을 보이기 시작하면 며칠을 못 가 죽고는 했다. 안타까운 마음에 영양제며 해열제를 사다가 주사해주어도 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어미가 기어이 알고 찾아와 제 새끼 내어놓으라고 밤새 밖에서 울부짖는 것도 매정하게 모른 채하며 애써 길들인 고양이는 늘 사람 곁에서 재통을 부리고 가끔 쥐를 잡아다 우리더러 보라는 듯 어르기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것이었다. 대개 삼 년을 넘기지 못했는데, 종적이 없다가 여러 날 뒤에 시궁창이나 고샅에서 죽은 채 발견되고는 했다. 고양이의 죽

Yummi House 雅敍苑

Chinese Cuisine(중화요리 전문 식당)

Mon-Sun. 11:00am-9:00pm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Phone(505) 271-8700

주천 메뉴

삼선짜장면 \$8.95

삼선짬뽕 \$8.95

해물탕면 \$8.95

다섯가지 냉채 \$32.95

깐풍기, 닭고기 튀김과 마늘소스 \$8.95

탕수우육 \$11.95

양장피 잡채 \$17.95

음은 마음을 훨씬 더 아프게 만들어서, 다음 번식기가 몹시 기다려졌다.

고등학교에서 축산학을 배우면서 새끼돼지들이 돼지를 레라로 죽은 걸 알았다. 전염성이 아주 높은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돼지콜레라는 새끼 때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돼지에 걸리면 치료할 방법이 없는 질병이다. 그래서 온 동네의 모든 새끼돼지들이 찍쓸이를 당하고는 했었던 것이다. 번번이 사라져 주검으로 발견되던 고양이는 고양이전염성장염이 그 원인이었다. 어린 고양이에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발생하는 급성질병인데, 갑자기 나타나는 심한 구토와 설사 때문에 탈수현상을 보이면서 기운이 없어지고 풀이 죽어버리며, 돼지콜레라처럼 걸렸다 하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치사율이 매우 높은 질병이다. 조교로 대학의 동물병원에 근무하면서 이 병으로 죽어가는 고양이를 수없이 보았다.

오래 전부터 한국의 기후와 풍토에 순치되어온 한우는 좀처럼 병에 걸리지 않는 가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한 한우에 1970년부터 원인 모를 질병이 발생하여 갑자기 죽어 넘어지는 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했다. 전라남도의 경우 화순, 나주, 보성, 강진 등지에서 16개월 동안에 52마리나 같은 모양으로 폐사하는 바람에 축우질병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주인에게 소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확인하고, 죽은 소를 부검하며, 소에서 채취한 검사재료는 물론 현지의 흙·풀·물을 가져다가 분석하는 등의 다각적인 시도가 있었으나 청산, 농약, 질산염 등에 의한 중독증으로 유추했을 뿐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때마침 소의 급성폐사가 발생했다는 외국의 보고도 많았지만 거기서 밝혀진 원인은 한우에는 부합되지 않았다. 그 문제는 위원회에 참여했던 내 머리 속에 줄곧 남아있었다.

한우 급성폐사의 원인은 끝내 하나의 숙제가 되어, 나로 하여금 질병의 본질을 다루는 수의병리학을 전공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해외유학생의 박사과정이 대개 그러하듯, 실험실에서 결과를 얻어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일이 급선무여서 이 문제로 고심할 시간은 많지 않았다. 궁여지책으로 소가 갑작스럽게 죽는 질병을 있는 대로 간추린 다음, 그 하나하나에 관한 문헌을 수집하여 틈틈이 읽어나가는 것으로 훗날을 대비할 수밖에 없었다.



Sushi & Sake

Lunch
11:00-2:0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9:30 Fri-Sat

12:30-8:00 Sunday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 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한우가 갑작스럽게 죽는 예는 그 후 횟수가 많이 줄어, 내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조그마한 섬마을인 전라남도 여천군 화양면 상화리에서는 1984 ~ 1988년 사이에 해마다 4 ~ 8마리의 소가 죽는 바람에 경작에 많은 곤란을 겪었다. 그리고 겨우 20호의 조그만 마을인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서호리에서는 1980 ~ 1987년 사이에 소 (27마리), 돼지 (60마리), 개 (93마리) 가기르는 족족 죽어버려서 1988년부터는 닭, 오리, 고양이 이외의 짐승은 기르지 못하고 있었다. 1988년과 1993년에 각각 농림수산부와 전라남도의 지원으로 두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팀이 구성되었고, 연구의 책임자가 된 나는 20여 년 전의 경험과 문헌조사에서 얻은 지식으로 소가 죽는 원인을 밝혀낼 수 있었다.

소가 죽는 원인은 저마그네슘혈증이었다. 대개 두 살 남짓의 어린 소에서 나타났으며, 멀쩡하던 소가 갑자기 심하게 떨면서 소리를 지르고 넘어져 이내 숨을 거두어버렸다. 게다가 부검이나 조직검사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발견되지 않아서 원인을 밝혀내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마그네슘 결핍증은 우유만 먹여 기르는 송아지에서 발생하고, 화본과 식물이 많은 초지에 방목한 어미 소가 새끼를 낳았을 때도 발생한다. 식물의 생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초지에 비료를 뿌려주면 이 질병의 발생률은 더 높아진다. 두 번의 연구에서 저마그네슘혈증을 예상하여 시험축으로 소를 임식하고 사료에 마그네슘을 첨가하도록 하였던 바 시험기간 중에는 물론 시험이 끝난 후에까지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돼지와 개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등 사양관리를 잘못한 결과 죽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동물에 대한 내 관심은 정년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최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들이 많아져, 마치 인류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 미국으로 건너오자마자 야생동물기금과 연락되어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있다. 야생동물기금에서는 십여 년 전에 협력자들과 제휴 하에 미국의 북방대초원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하여 소과동물인 바이슨이 새로 자리잡게 하자고 결정했다. 물줄기와 야생동물의 이동통로를 정비하고, 그곳에 서식하던 동식물을 다시 들여오면서, 현지의 경제와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는데 벌써 생태계가 복원되면서 바이슨 폐가 정착하고 있다고 한다. 지축을 올리며 달리던 옛날의 바이슨 폐를 다시 만들자는 꿈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소식에 문득 우리 한우가 생각난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신입니다.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즈음 short sale로 팔는 집들이 아주 많아서, 한국분들에게도 속세일에 대해 인식도 시켜드리고, 혹시 경제 사정으로 임대셔서 페이먼트가 힘드신 분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윤행으로 넘어가고 또한 크레딧도 아주 망가지거든요. 아래 article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ALLSTAR REALTY
OUR NAME SAYS IT ALL™

김영신 부동산

Associate Broker
7001 Prospect NE, Ste. 200
Albuquerque, NM 87110
yongfre@yahoo.com

505.321.7695 (cell)
505.888.1700 (office)
505.888.9650 (office fax)

R
RE/MAX

숏세일이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인데,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은행에 남아있는 돈이 팔고자하는 금액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과 잘 태협해서 은행이 손해를 보고 팔아주는 걸 용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처럼 그리 간단하게 처리되는 게 아니고 여러 서류 준비 그리고 심사를 통해 은행에서는 숏세일을 허용하게 됩니다. 즉 이 단계는 생활이 어려워 페이먼트를 못해서 은행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거나, 팔아야 하는 테 마켓이 너무 침체돼 주택 가치가 많이 떨어졌을 때 신청하게 됩니다. 숏세일은 일반 거래와 달리 은행을 끼고 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보통 달라 서류 준비를 비롯해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숏세일로 매매하셔야 되는 상황이시면 숏세일 경험이 있는 에이전트를 찾으십시오. 또한 얼마만큼의 성공율이 있는 지도 체크하셔서 리스팅을 주는 게 현명하다고 사려됩니다.

비밀보장, Stop foreclosure, Save Credit, 그리고 HAPA Program 숏세일을 이용하시면 이사비용 보조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숏세일의 많은 경험과 성공을 95%를 갖고 있습니다. 전화주십시오, 친절하고 상세하게 진행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숏세일, Bank Owned 주택 또는 상가들을 아주 낮은 이자율로 매매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연락 주십시오. 김영신 (505-321-7695, or yongfre@yahoo.com)



한국식품점

(505)-275-9021
1410 Wyoming NE



Everything You Need for Oriental Food

Mon~Sat 10:00~6:00
Sunday close

흰 쌀밥과 잡곡 밥

김준호 장로



임진년 새해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새 출발 합시다.

새해가 왔네요. 우리들은 새해 인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하지요. 그런데 미국 분들은 “Happy New Year”합니다. 의미는 비슷합니다마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5000년 우리역사를 훑어보면 태평세월이 그리 많지 않았지요. 그렇게 시달리고 부대끼면서 배운 것 중의 하나가 복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또 아침 인사를 할 때 “조반 드셨나요” 저녁때는 “저녁 드셨나요”하지요. 여기서 미국 분들에게 Good morning하지 않고 Did you eat breakfast?하면 그분이 어떻게 대할 것 같나요? 독자를 상상에 맡깁니다.

우리들은 가끔 오복을 말합니다. 새해에 복이야기를 하게 되었군요. 다섯 가지래요. 첫째는 수: 오래 사는 것인데 모든 사람들의 소원인 듯하고, 둘째는 부: 부자가 되는 것인데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 재산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강녕: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한다는 것이고, 넷째는 유호덕: 남에게 선을 베풀어 덕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고 다섯째는 고종명: 편안하게 질병 없이 살다가 고통 없이 일생을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9988234(99세까지 88하게 살다가 2,3일만에 4망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인가요? 김진홍 목사님의 것? 아니면 우리교회 이 장로가 잘 쓰는 말이 아닌가요? 어쨌든 새해를 맞아서 우리 모두 오복 받기를 바랍니다. 이번호의 주제는 지난 10월호의 속편?이라고나 할까요. 오복중의 하나입니다.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시간은 쉬지 않고 가기만 하지요. 우리 교회도 금년에 30년이란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고비도 있었지만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로 자라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특별히 현재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세 분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또 두 분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밖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 성도님들 모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여러 꿈들을 이루어 나가시기 바라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흰 쌀밥을 먹는 것이 뭐 대단할 것 없다. 미국에서도 늘 먹으니 말이다. 그런데 내가 어린나이로 국민학교 다닐 때 아침에 친구와 함께 학교에 가려고 그 집에 가면 가끔 아침식사하는 것을 보곤 하였다. 그 친구집의 아침식탁은 우리 집과 너무도 달랐다. 그들은 흰 쌀밥과 국 그리고 여러가지 반찬들을 먹는데 얼마나 흰 쌀밥이 먹고 싶었는지 나는 군침만 삼키곤 하였다. 밥을 좀 같이 먹으라고 하지 않나 생각하다가 도 으레히 아침밥을 먹었으려니 했던 것 같다. 나의 어머니는 흰쌀이 비쌌기 때문에 흰쌀은 아주 조금 넣고 보리, 조, 콩, 또는 팔을 두고 밥을 지었기 때문에 흰밥은 좀처럼 먹을 수 없었다. 우리 집은 6식구, 두 형님과 누님은 한참 자랄 때니 무슨 음식을 만들어도 순식간에 해치웠다. 그런데 나의 까다로운 식성은 어머니의 마음을 편치 않게 했다. 콩밥은 콩을 걷어내야 하고 국에 기름이 뜨면 그 기름을 떠내야 했다. 그래도 어머니는 내가 막둥이라고 응석을 받아 주셨다. 나의 누님은 참다 못해 통牒스럽게 소리를 질렀다. “준호는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봐야 알아” 지금 생각하면 나는 정말 철없는 철부지였다. 그렇게 나무라시던 누님이 내가 박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나갔을 때 동네 사람들에게 방송하고 음식을 차렸는데 그 야말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주어 대접을 잘 받았던 적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때 먹었던 잡곡밥을 생각하면 그야 말로 더 없이 좋은 영양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는 내 자신이 정말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었다고 여겨진다. 일자무식이라고(?)해도 맞는 말이다. 또 형무소에서는 비용 절약을 위해서 죄수들을 콩밥을 준다고 들었다. 그래서인지 유행하는 말에 “너 콩밥 좀 먹어 볼래?” 좀 정신 차리라는 말이다. 콩밥은 죄수들 뿐만 아니라 멀쩡한 우리들도 가끔 먹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흰밥과 현미밥, 또는 콩밥은 어떻게 다를까? 흰쌀(백미)은 마치 남자머리를 빽빽 깍은 것처럼 수확된 벼를 쌀겨와 쌀눈을 각아 내고 하얗게 만든 쌀이다. 이것을 가지고 밥을 해놓으면 정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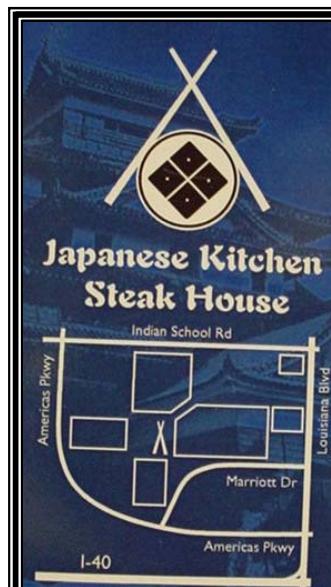


백미와 현미의 영양분 함량 (연두색이 현미, 파란색이 백미)

좋고 먹음직스러워 침이 절로 나온다. 그렇지만 영양가는 많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편 현미는 쌀눈과 쌀겨를 벗겨내지 않아서 눈으로 보기에는 백미처럼 탐스럽지 않고, 빤작 빤작 하지 않고, 거무튀튀하게 보인다. 그러나 영양가는 천양지차라고 해야 될 것 같다.

(위에 도표를 잘 검토해 보세요. 연두색이 현미의 영양소들이고 파란색이 백미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현미는 살아있는 식품이고 백미는 죽은 식품이라 해야 맞을 것이다. 도표에 없는



Japanese Kitchen

제페니즈 키친

일본인이 경영하는 일식 정통집
일본정식(5코스:30불, 6코스:40불,
8코스:50불)
모듬정식(벤또), 해물우동, 튀김우동,
닭고기정식, 고등어정식, 풍지정식, 연어정식,
그외 일본 정통음식
(대만)야끼전문, 고기 종류와 해물 외 다수

Phone(505) 884-8937
6521 Americas Parkway, NE, ABQ



것 몇 가지 더 열거한다면 백미는 소금양이 현미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 탈이고 또 칼로리가 많아서 만병의 원인이 되는 비만을 자초한다는 것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이 주식이기 때문에 무슨 밥을 먹을 것인가 다시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다. 현미에다가 검은 콩을 섞어서 현미콩밥을 먹는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영양식이 없을 줄 안다. 사실은 현미콩밥이 여성들의 유방암이나 골다공증에 또 남성들의 전립선암등에 특효가 있다는 연구발표도 있다. 현미콩밥은 우리들이 그리 어렵지 않게 평소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식품이라 할 수 있다. 현미콩밥의 좋은 점은 현미가 가지고 있는 protein과 콩이 가지고 있는 protein이 잘 조합되어 고기의 푸로틴과 거의 대등한 것이어서 고기를 먹는 대용으로 삼을 수 있다. 바로 지난 10월호에서 내가 지적했던 American Diet중 제일 위험한 미국인들의 고기 소모량을 현미콩밥으로 대치한다면 누구 말마따나 무병장수한다는데 꾸물거릴 필요가 있을까? 정말 그렇게 될지 누가 아는가? 나부터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는 생각되지만 실제로 할려면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 현미밥의 pH가 6.2-6.7라고 한다. 건강한 사람의 pH는 6에서 7.5사이이므로 암 예방에 일조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우리들이 늘 Cholesterol이 많은 것이 문제가 되어 그것을 내리려고 약도 먹어 보기도 하며 신경을 쓴다. 코레스트롤은 간에서 매일 만들어지는데 각 세포의 벽을 만드는 일과 호르몬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데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된다. 루이지아나 대학의 Hegsted박사가 연구한 결과를 보면 현미 안에 있는 Oryzanol 성분이 코레스트롤을 내려주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즉 100g(3.5 oz)정도의 현미밥을 3주동안 매일 먹었더니 그 수치가 7% 감소했고 LDL도 10% 감소했는데 HDL은 높은 Level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밥을 주식으로 하는 동양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또 그 박사는 보통 의사를 이 처방하는 코레스트롤 약품의 성분이 현미안의 것과 비슷하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러니까 독자들 가운데 코레스트롤을 내리기를 원하는 분은 Low fat diet와 현미밥을 병행해보는 것도 좋을 성싶다. 또한 현미밥은 좀 많이 씹어야 되므로 소화도 잘되고 Fiber도 많아서 수분을 스푼지처럼 흡수해서 장을 잘 세척해서 변을 잘 통과시키기도 한다. 그뿐이 아니다. 체내에 있는 estrogen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서 유방암 발생률을 저하시킨다고 한다. 미국에 의술이 최첨단에 와 있지만 어째서 유방암 사망율이 세계에서 손꼽는 지경에 와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 한국 여성들의 사망율은 미국보다 3분의 1밖에 안되므로 팬찮은 소식이기도 하다. 발표된 통계를 보면 한국이 5명/10만명당, 중국이 6명, 일본이 10명, 영국이 23명, 독일이 26명, 미국이 19명 등으로 나왔다. 그런데 전체 인구를 곱한다면 중국은 엄청난 사망자를 낸다.

내 말은 현미밥 또는 현미콩밥을 먹어서 건강을

지키자는 것이다. 또 치질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현미밥이 장벽을 자극해서 연동운동을 시켜 유해물질을 빨리 배출하기도 하고 대장암등을 예방해 주기도 한다. 변비가 심한 분은 현미죽을 끓여 드시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한 가지 덤으로 언급 한다면 우리들에게 아주 생소한 rooibos tea이다. 내가 약 장사도 아닌데 약을 팔아야 할지 망설이게 된다. 그러나 건강 상식으로 알아 주었으면 한다. 이 tea는 우선 caffeine이 전연 없어서 그것 때문에 밤잠 설치는 일이 없어서 좋을 뿐 아니라 오히려 insomnia(불면증)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영양소들이 요것저것 골고루 들어 있어서 차(茶)중의 차(茶)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자, 그러면 이 차의 효능을 조목조목 열거해보자.

1. 칼슘, 마그네슘, 홀로라이드가 들어 있어 뼈와 치아에 좋다.
 2. 어린아기들 복통(colic)에 좋기 때문에 우유에 타서주면 좋다고 한다.
 3. Alpha hydroxyl와 zinc가 들어 있어서 피부에 좋고 여드름, 습진, 또는 햇볕에 탄데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4. Kidney stone 때문에 고생하는 분은 이 차를 들면 좋다고 한다. 이 차에는 oxalic acid(몸안에서 돌을 만드는 범인)가 없기 때문이다.
 5. Cholesterol을 낮추어 준다.
 6. 쥐(cramp) 나는 것을 방지해 준다.
 7. 앤티 옥시던트가 많아서 암, 심장병, 관절염 등에 유효하다.
 8. 간을 보호한다.
 9. 기억력을 향상시킨다.
 10. 식욕을 돋운다.
 11. 두통을 완화시킨다.
- 정말, 끝이 없다. 더 있지만 이만 하고 독자들이 알아서

HUONG THAO
Vietnamese Cuisine

Lunch & Dinner • Beer & Wine
Tues - Sat 11:00am - 9:30pm • Sun 11:00am - 8:30pm

1016 B. Juan Tabo NE
Albuquerque, NM 87112 • (505) 292-8222

Choices: pork, shrimp, chicken, beef, \$11.25 or any combo for \$11.95
Extra large add \$3.95 Extra noodles \$2.25 Extra Meat 2.95

18

베트남 스프링롤

시험해 보기 바란다.

이 차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regular red bush(rooibos) tea이고, 둘째는 green rooibos tea이다. Green 이 fermentation을 하지 않아서 더 antioxidant가 풍부하다고 한다. 물론 좀 더 비싸다. 하지만 건강을 돈으로 따질수 있을까? 독자들의 결정에 맡긴다.

미국에서 현재 450,000,000 cup의 coffee 를 매일 마신다고 통계가 나왔다. 어떤 이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찾고 하루 종일 마셔대니 이 수자가 맞을지도 모른다. 미국의 제일 큰 수입품목이 oil이고 둘째가 coffee라는 데 년간 \$4 billion 어치 커피를 사들인다. 또 습관성이든, 중독성이든 정신 없이 마시니 문제는 문제이다.

옛날에 대영제국과 청나라간의 아편전쟁이 일어났었는데 독자들 가운데 무슨 이유 때문이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한다면 그 사연은 이렇다. 1800년대에 영국은 산업혁명 후 세계의 강국으로 군림하게 되었고 tea(차)문화가 발달하여 차 수입량이 급증하였다. 그 차가 다름 아닌 청나라 것이었다. 영국은 수입양이 수출양에 비해서 격심한 차가 생기자 관세를 높여 이 문제를 해결코자 했지만 실패했다. 큰 고민에 빠진 영국은 마지막으로 아편을 수출하는 묘안을 내서 그것으로 무역불균형을 완화 시켰다. 1729년에 200상자의 아편이 청국으로 수출되던 것이 1838년에는 무려 2만 상자로 늘어났다. 청나라에는 수백만 명의 아편 중독자가 생겼고 어떤 중독자는 부인을 팔아 아편을 먹었다는 풍문도 나돌았다. 이 처참한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청나라는 문제의 아편들을 몰수하여 폐기하였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서 홍콩이 156년이란 긴 세월동안 영국의 통치하에 있게 되었다. 이런 치욕을 당했던 청나라는 굴욕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를 그들 가슴에 남겼는데 현재는 어떤가? 지금의 중국은 청나라와는 비교가 안 되는 강국으로 발전했고 세계 어떤 나라도 감히 중국을 향해 아래라 저래라 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국도 산더미 같이 엄청난 빚을 중국에 지고 있으니 큰 두통거리이다.

Lunch 11:00-2:30 Mon-Sat	KOREAN B.B.Q HOUSE
Dinner 4:30-9:00 Mon-Thur 4:30-10:00 Fri-Sat	Sushi & Sake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Sun 4:00-9:30	phone (505) 338-2424 fax (505) 338-2426

미안하게도 또 샛길로 빠졌는데 아래 도표는 coffee, tea 등에 caffeine량을 조사한 것이다.

Coffee

Type of coffee	Size*	Caffeine**
Espresso, restaurant-style	1 oz. (30 mL)	40-75 mg
Espresso, restaurant-style, decaffeinated	1 oz. (30 mL)	0-15 mg
Generic brewed	8 oz. (240 mL)	95-200 mg
Generic brewed, decaffeinated	8 oz. (240 mL)	2-12 mg
Generic instant	8 oz. (240 mL)	27-173 mg
Generic instant, decaffeinated	8 oz. (240 mL)	2-12 mg
McDonald's brewed	16 oz. (480 mL)	100 mg
McDonald's Mocha Frappe	16 oz. (480 mL)	125 mg
Starbucks Latte	16 oz. (480 mL)	150 mg
Starbucks Pike Place brewed	16 oz. (480 mL)	330 mg
Starbucks Pike Place brewed, decaffeinated	16 oz. (480 mL)	25 mg

Tea

Type of tea	Size*	Caffeine**
Brewed tea		
Black tea	8 oz. (240 mL)	14-61 mg
Black tea, decaffeinated	8 oz. (240 mL)	0-12 mg
Green tea	8 oz. (240 mL)	24-40 mg
Iced tea		
AriZona Iced Tea, lemon-flavored	8 oz. (240 mL)	11 mg
Generic instant, unsweetened	8 oz. (240 mL)	26 mg
Lipton Brisk Lemon Iced Tea	8 oz. (240 mL)	5-7 mg

Other products

Type of product	Size	Caffeine*
Sweets		
Chocolate chips, semisweet	1 cup	104 mg
Dark chocolate-coated coffee beans	28 pieces	336 mg
Foosh Energy Mints	1 mint	100 mg
Hershey's Kisses	9 pieces	9 mg
Medications		
Excedrin, Extra Strength	2 tablets	130 mg
NoDoz, Maximum Strength	1 tablet	200 mg

Energy drinks

Energy drink	Size*	Caffeine**
5-Hour Energy	2 oz. (60 mL)	207 mg
AMP, regular or sugar-free	8 oz. (240 mL)	72-74 mg
Cran-Energy	8 oz. (240 mL)	70 mg
Full Throttle	8 oz. (240 mL)	70-72 mg
Monster	8 oz. (240 mL)	80 mg
Red Bull	8.4 oz (250 mL)	76-80 mg
Rockstar, regular or sugar-free	8 oz. (240 mL)	79-80 mg
Vault, regular or sugar-free	8 oz. (240 mL)	47 mg

Armani Mansour

Licensed Sales Producer
The Keller Agency



Allstate Insurance Company

6321 Riverside Plaza Lane NW
Albuquerque, NM 87120

Phone 505-898-8565

Fax 505-898-7674

armanimansour1@allstate.com

이것들을 살펴보면 green tea에 카페인은 24-40mg 들어있기 때문에 보통 커피와 거의 비슷한 양이다. 그러므로 그린티 애호가들은 그린티 안에 있는 엔티옥시탄트와 영양소에만 집착하면 안 되고 조심해야 할 것이 카페인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참고로 caffeine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아래에 삽입했다. 어린애들이 자주 먹는 soft drink에 그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독이 된다는 것을 알아 두는 것도 좋을 것이다. 7-up, Sprite, Mountain Dew, Ginger Ale 등에는 caffeine이 없다. 내가 선호하는 rooibos tea을 시험해 보셔도 좋겠다.

Signs and Symptoms of Caffeine Intoxication or Abuse

nervousness	headache	increased heart rate
anxiety	upset stomach	irregular heartbeat
irritability	GI irritation	elevated blood pressure
agitation	heartburn	increased cholesterol
tremors	diarrhea	nutritional deficiencies
insomnia	fatigue	poor concentration
depression	dizziness	bed wetting.

Caffeine Withdrawal Symptoms

headache	constipation	runny nose
craving	anxiety	nausea
irritability	nervousness	vomiting
insomnia	shakiness	cramps
fatigue	dizziness	ringing in the ears
depression	drowsiness	feeling hot and cold

우리들이 Steve Jobs가 몇 달 전에 안타깝게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Apple computer 설립자였다. 그는 발명가로, 기업가로 알려진 분이다. 56세에 생을 마친 것이다. 한참 일할 나이였는데. 그런데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자기 건강에 너무 고집을 부렸다는 것이다. 돈도 많은 분이었을 터인데 Pancreatic cancer를 식이요법으로만 치유할 수 있다고 고집했다고 한다. 내가 말하는 것도 일종의 식이요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대의학을 외면해도 안 된다. 식이요법에도 한계가 있고 현대의학에도 한계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 속담에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말이 있다. 나는 심사숙고하며 쓰기는 했지만 혹여나 잘못된 내용을 남기지 않았나 걱정도 된다.

송구영신, 새해 아침이 왔는데 독자들은 무엇을 꿈꾸고 계획하는시는지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음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으니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나 할까.

어떤 조직에서든지 team work이 잘 실행되어야 번창하고 발전한다. 비즈니스나 교회도 마찬가지다. 가정도 공공단체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들은 독불장군으로 따로 살 수 없고 세상에 늘 속해 있기 때문에 team work의 아쉬움을 더 느낄 때가 있다. “나는 하는데 너는 왜 -----” 임진년 새해에 TEAM WORK 이 잘 실천되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Facio Ergo Sum(화치오 에르고 숨). “나는 행동 한다. 고로 나는 존재 한다.” 이것은 우리 감리교회의 표어이다. 여기에다 team work을 넣어서 “나는 함께 행동한다. 고로 함께 존재한다.”라고 의치고 싶다.

2011년 NLMC 피택직분자 훈련 섬김의 결단 - 어떻게 섬길 것인가!

New Life Church in Denver
최 건 영 장로

한 4개월, 직분자 훈련을 받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섬김을 위한 덕목이 우리나라 속담처럼 서 말은 되는 것 같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페어야 보배이듯이, 이제는 젤 차례이다. 그러나 섬김의 결단 이전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일찌기 공자는 사서 삼경중 하나인 “대학”이라는 책에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을 하였다. 수신(修身)이 뒷받침 되지 않은 제가(齊家)가 의미가 없듯이 섬기는 직분자의 성품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섬김의 결단이 뛰어나도 그 섬김은 모래위에 세운 집에 불과할 것이다. 내게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있는 성경말씀이 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라고 하였다. 바로 이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각 개인의 성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착해야 한다. 요즘 착하다고하면 바보라는 의미로 쉽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해야 한다. 바나바와 같이 착한 성품이 있었기에 (행11:24) 바울이 역사에 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디모데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 것도 그의 안에 착한 성품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다음의 의로움과 진실함은 서로 통하는 성품이라고 생각한다. 의로우면 진실해야하고 진실하면 의로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에 살긴 하지만 역시 내게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또한 한국적 선비의 곧은 품성이 아직은 더 좋다. 의로움이나 곧은 품성을 생각할 때 즐겨 암송하는 옛 시조가 있다. 고산 윤선도의 “오우가” 중에서 대나무에 관한 시조이다.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뉘식이며 속은 어이 비었느냐
저렇게 사시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THE
INGLES
Company
Realtors



최 귀 분

- Office: 505-828-1366
- Fax: 505-828-0773
- Cell: 505-249-8686
- E-mail: guiboon@msn.com

6711 Academy Rd., NE Suite B, Albuquerque, NM 87109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섬기려하고….”(막10:45)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의 많은 직분자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신 진리이다. 그러나 “섬긴다”라고 할 때 무턱대고 섬기자! 라고 한다면 구체성이 없을 뿐 아니라 나중에 맷게 될 열매도 불확실하게 될 수가 있다. 앞에서도 언급을 하였지만 지난 4개월 동안 배운 덕목만 생각하여보아도 아볼로 성경공부를 필두로 해서 간간히 목사님께서 주신 지도자의 요전이라든가 또 얼마 전에 읽은 존 스토프 목사님의 “제자도”에 나와있는 덕목까지 합친다면 족히 수십 가지는 될 것이다. 그러니 이쯤에서 간단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역시 장로의 몇 가지 모델로부터 섬김의 구체적 모습을 얻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다.

장로의 모델로 세분을 생각하여 보았다. 이것은 어느 한 순간에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평소에도 생각하여 온 분들이다. 첫째는 성경속의 인물이요, 둘째는 현세에 실존하는 인물이 아닌 소설속의 인물이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현세에 실재하는 인물로 지금도 살아계시다.

첫째 성경속의 인물은 가이오 (Gaius) 장로이다. 왜 하필 많고 많은 성경속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가이오 장로인가.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중 베드로나 요한 아니면 구약 속 요셉, 다윗, 다니엘 등등 생각해 보면 뚜렷한 인물들이 많이 있다. 장로 가이오를 장로의 모델로 삼은 것은 단지 그 앞에 장로라는 타이틀 때문이었지만 그에 대한 기사를 읽다보니 장로의 모델로 삼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그에 대한 성경말씀은 요한 3서에 나오는데 이 글은 사도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주는 글이라해도 곤이 아니다. 그에 대한 모델은 2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고 형제들을 신실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긴 사람이었다. (요한3서 1~8) ‘진리 안에 있다는 것’ 즉 성경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아주 쉬운 것 같지만 그리 만만히 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도 이제는 사탄의 공격에 쉽게 노출되어 있어서 웬만한 분별력이 아니고는 감당해 내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웬만한 결단이 아니고는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지켜낼 수 없을 것이다. 가이오 장로는 또한 형제 (나그네)들을 잘 대접한 것 같다. 대접하는 것도 쉬운 것 같지만 시간과 물질의 희생이 따라야하며 또 그것이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에 나오는 조시마 장로이다. 물론 그는 러시아의 수도사이기는 하나 내가 읽은 책에는 “장로”라고 되어 있어서 재빨리 가져온 것 뿐이다.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농촌의 아낙네들이나 하류 계급의 사람들이었다. 그가 신학이라든가 교리적인 것들을 많이 배웠겠지만 그런 것들을 내세우지 않고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 잘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 간단한 기도와 축복으로 사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이사헌 회장(505-271-8031)

§ 월요일: 매월 세 번째주 금요일 오후 7:00 pm

§ 장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lbuquerque, NM

§ 주기도회: 매주 505-239-4401

§ 성서모임: 매주 505-515-4211

뉴멕시코 성경교회

천종철 목사

주일예배 § 시간: 오후 1:00 pm

새벽기도 § 시간: 5:30 am (매일)
§ 장소: 2801 Lomas Blvd NE, Albuquerque, NM 87106
(505) 238-3551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교회 (Los Alamos, Santa Fe)

도강국 목사

주일예배 1부 § 시간: 11:30 am

§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 시간: 2:00 pm

§ 장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매달 넷째 주일은 연합예배입니다.

§ 시간: 11:30 am

§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拉斯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박종인 목사

주일예배 § 시간: 11:00 am

§ 장소: 1441 East Mesa. Las Cruces, NM 88011

목요일 6:00 pm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김희석 목사

주일예배 §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 6:00 am (Tue-Fri)

성경공부 § 매주 월요일 10:30 am (한인회관)

§ 장소: 12120 Copper Ave., NE, Albuquerque, NM 87123
(505) 903-2297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기기진 목사

주일예배 (Worship) § 11:00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 11:00 am (Sunday)

수요예배 § 매주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 5:30 am (Tue-Fri) § 6:00 am (Sat.)

파밍턴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진경민 목사

주일예배

§ 시간: 12:00 am (한국어 예배) 1:00 pm (Indian 영어예배)

§ 장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505-453-5461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윤정렬 목사

주일예배 § 시간: 오전 9:00 am § 시간: 오전 11:00 am

주일학교 § 시간: 오전 11:00 am

§ 장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505) 238-3551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 시간:

§ 장소: 405 N. Connelly St, Clovis (575)-762-4510

람들을 들려보내곤 하는 그런 장로였다. 이사야의 “내 백성을 위로하라”(사40:1~2)는 예언과 같이 그는 위로의 말을 주며 사람들을 평안히 들려보냈다. 잘듣고 또 조심해서 위로의 말을 해 주는 것 자체로도 장로로써 귀한 섬김이라 생각한다. 또한 젊었을 때 자신의 몸종 아파나시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는 것 이라든가 자신과의 결투상대였던 장교와 화해를 한 것 자체가 고귀한 인격의 소유자라 할 수 있겠다.

세번째로는 K장로님 이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니 실제 성함은 생략하기로 하겠다. K장로님은 우리 가족이 Hurricane Katrina 때문에 곤란에 처해 있을 때 같이 아파해 주셨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누가 나의 친구인지를 구별할 수 있듯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니 우리 가정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시는 분인가를 알게 되었다. 이같이 나도 작게는 우리 오이코스 식구들을 위해서 또 나아가서는 우리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싶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나의 훌륭한 인격이나 물질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며 또 그 아픔을 같이 나눌 때가 아닌가 싶다. 우리 가정에는 K장로님이 그런 분이시다. 늘 몸은 떨어져 있지만 사소하게는 아이들 문제에서부터 즐거운 일 기쁜 일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정에 귀한 장로님 이시다. 미래에 우리 두 부부의 모습이 장로님 권사님 두 분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존경하는 부부이시다.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표본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닌가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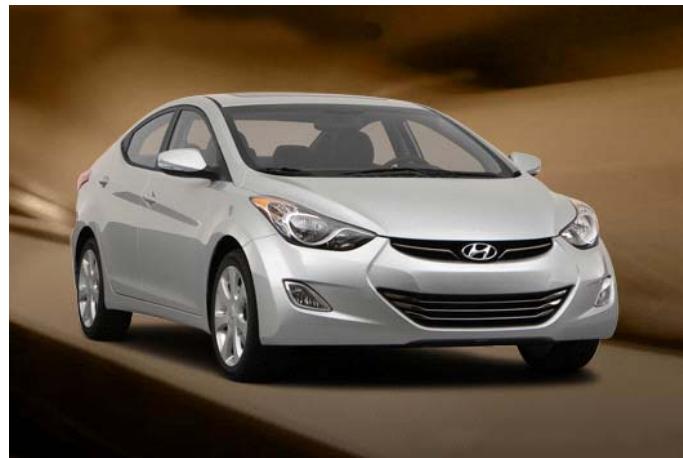
성정이 우리와 같다던 엘리야도 내게는 다가가기가 너무 높은 봉우리로 생각된다. 위에 소개한 장로의 모델들을 통해서 한발 한발 진보해 나갈때 결국 주님께서 기뻐하실 성숙한 장로의 모습이 되어있으리라고 믿는다.

현대자동차 엘란트라 '북미 올해의 차'로 선정

현대자동차의 준중형차 '엘란트라(Elantra)'가 '2012 북미 올해의 차(2012 North American Car of the Year)'로 뽑혔다.

엘란트라는 2012년 1월9일 미국 디트로이트 코보센터에서 열린 2012 북미 국제오토쇼(North American International Auto Show)에서 경쟁 최종후보로 올라온 포드 포커스(Focus)와 폭스바겐 패스파트(Passat)를 물리치고 '북미 올해의 차'의 영예를 차지하게 되었다.

모터쇼에 참가한 업체는 미국의 '빅3'인 GM, 포드, 크라이슬러와 한국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전 세계의 40여개 업체가 참가해 50여개의 브랜드와 500대 이상의 차량이 전시되었다.



'올해의 차'는 북미에서 출시된 신차를 대상으로 캐나다와 미국의 자동차 전문기자 50명이 스타일, 실용성, 성능, 안전도, 만족도 등을 심사해 선정하며 자동차업계의 많은 상 가운데 최고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칼 브로어(에드먼즈닷컴)씨는 "엘란트라는 1만6천 달러 이하의 가격으로 고연비 엔진과 강력한 파워, 세련된 디자인, 초장기간 워런티 등을 제공한다.

PARK Fine Art
The Galeria 20 First Plaza NW Suite 27
Albuquerque, NM 87102

문화센터 강의 안내

성인, 주부취미반 (유화—oil painting과 파스텔화)
임시반 (포트폴리오준비반, 멋생반)

강사: 박영숙
서양화가, 큐러리 Director,
UNM CE oil painting 강사

□ 자세한 안내 문의
걸러리: (505)-764-1900 휴대폰: (505)-681-3859
www.parkfineart.com E-mail : contact@parkfineart.com

고급형의 경우 후방카메라와 뒷좌석열선(heated rear seat) 등까지 장착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차는 제네시스로 2009년에도 ‘북미 올해의 차’에 선정된 바 있어 미국 외 브랜드로는 벤츠와 함께 최다 수상모델을 배출한 업체가 됐다. 작년에는 현대차 쏘나타가 최종후보에 올랐으나 GM 세비 볼트에 아깝게 밀렸었다.

올해로 19번째를 맞이하는 ‘올해의 차’는 그동안 미국업체가 10차례(크라이슬러 4, GM 4, 포드 2), 유럽차가 4차례(벤츠 2, 폭스바겐·미니 각 1), 일본차가 3차례(도요타·혼다·닛산 각 1)를 차지했다.

높은 연비와 뛰어난 디자인으로 출시와 함께 큰 인기를 모아온 신형 엘란트라는 지난해 미국에서 17만2,669대가 팔려 1991년 진출 이래 최대 판매기록을 세웠다. 신형 엘란트라는 2010년 말 북미에 출시됐다. 캐나다에서도 작년 총 3만4,683대가 팔려 승용차 시장에서 4번째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한편 ‘올해의 차’와 함께 시상하는 ‘2012 북미 올해의 트럭’의 영예는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에보크(Evoque)’에게 돌아갔다. 트럭부문 최종후보 3종은 에보크 외에 BMW X3와 혼다 CR-V였다.

(편집부 제공: 캐나다 한국일보에서 요약)



이달에 날리는 콩코드 종이비행기

이경화 제공

콩코드는 미국의 뉴욕, 워싱턴 DC와 영국의 런던, 프랑스의 파리 사이를 정기 운항했던 초음속 여객기로 잘 알려져 온 비행기이다. 영국과 프랑스가 합작해서 설계 제작했고 1969년 처녀비행에 성공하고, 1976년 정기 운항에 들어가서 27년간 운항했다.

여기에 소개하는 종이비행기는 잘 나르기도 하면서 그 모양이 콩코드 비행기 모양이 되도록 몸체를 뾰족하게 하면서 가늘게 하였고 날개는 콩코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되는 삼각형 모양의 멀타(Delta) 날개가 되도록 고안했다. 날개의 면적이 작은 관계로 빠른 속도로 날릴 때 좋은 비행을 할 수 있게 했다.



콩코드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 종이비행기

이 비행기는 필자가 관리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Amazingpaperairplanes.com에 올려져 있는 종이 비행기 중의 하나인데 홈페이지 방문자들이 어떤 종이비행기를 좋아하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서 홈페이지 써버가 제공하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방문자 통계를 자주 들어가 보곤 했었다. 어느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해

죽 개업

Hair & Co.

5901 Wyoming Blvd NE Suite T
Albuquerque, NM 87109
(505) 797-8087

(New Clients 15% O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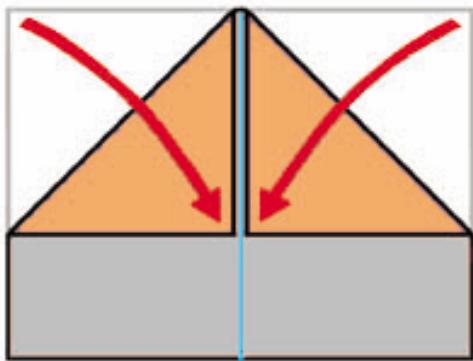
Hair Cut & Style
Shampoo & Style
Conditioning Treatment
Color service
Foil Highlight or Lowlight
Permanent Wave & Style
Permanet Hair Straightening
Waxing

서 방문자 통계를 들여다보니 한 시간 사이에 수백명의 방문자가 나의 종이비행기 사이트를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날에는 시간당 수십명 정도가 정상이고 오후가 되어야 시간당 100명정도선에 올라가는게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이른 아침에 100배 정도로 늘어난 방문자가 늘어난 데는 이유가 있겠다라고 생각되어 더 상세한 보고를 찾아보니 대부분의 방문자는 콩코드 종이비행기 페이지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서 더욱 더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그 이유를 두, 세 시간 뒤에 보도 된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다.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 국제공항에서 이륙하던 에어프랑스의 콩코드 여객기가 화염에 싸여 추락한 것이었다. 이 보도가 알려지자 유럽에 있는 어린이들이 나의 종이비행기 사이트의 콩코드 비행기를 방문하게 된 것이었다. 미디어의 보도가 어린이의 취미 활동에도 영향을 준 사례를 본 것이다.

이 사고로 인해 콩코드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러지 않아도 저렴한 요금으로 운항하는 점보제트와 경쟁에서 재정적으로 경쟁력을 잃어가던 차라 2003년 11월26일 콩코드의 운항은 중단하게 되었다. 콩코드 비행기는 여러 곳에 있는 박물관에 비치되어 항공 역사의 자료가 되었다. 시애틀에 있는 비행기 박물관에서 전시된 콩코드에 나도 잠시 올라가 본 일이 있다.

종이비행기 접는 안내는 나의 웹사이트에 있는 그대로 옮겼다. 칼라 인쇄된 종이로 접기를 원하면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How to fold a supersonic paper airplane"이란 제목의 동영상도 유튜브에 올려 놓았다. 동영상을 보면서 접으면 더 쉬울 것이다. 웹사이트와 유튜브 주소는 아래와 같다. www.amazingpaperairplanes.com www.youtube.com/amazinpaperairpla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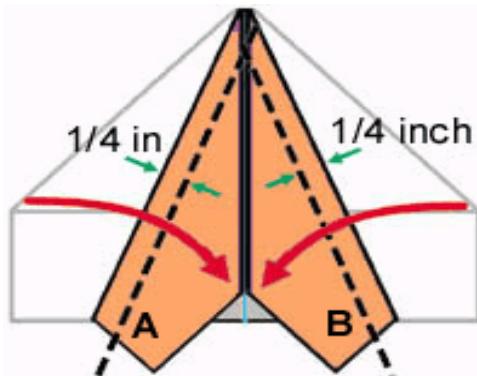
HOW TO FOLD A SUPERSONIC CONCORD PAPER AIRPLANE? FOLDING INSTRUCTIONS



Step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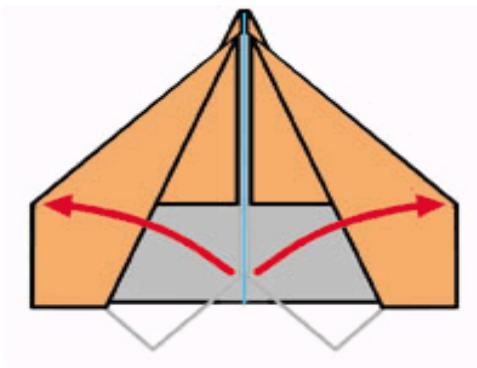
Start with an 8 1/2" x 11" paper. Fold paper in half crosswise and unfold. Then fold the top corners inward to the

center cre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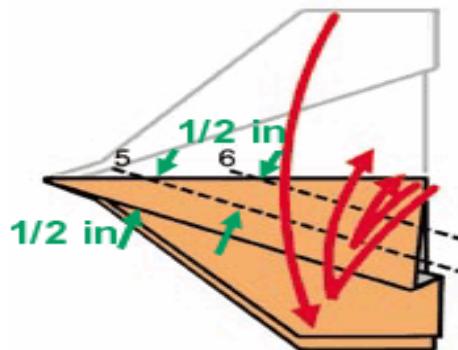
Step 2

Fold in the sloping edges to the center crease.



Ste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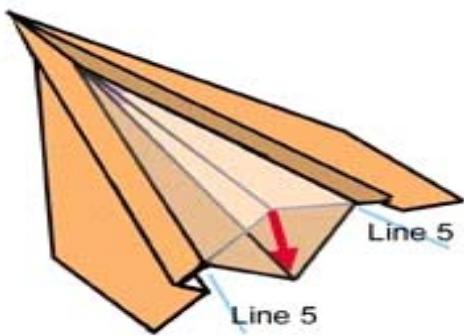
Make two valley folds along lines A, B which are shown in Step 2 dia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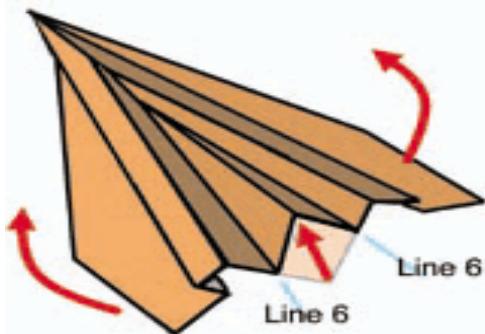
Step 4

Fold the paper in hal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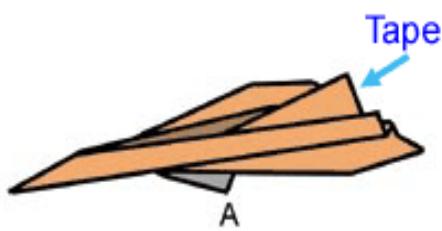
Then fold down the top corner along line 6 and unfold. Repeat for line 5.



Step 5
Push down the tail fin along line 5.



Step 6
Bring up the tail fin along the line 6.
Then fold up wings up along the edge
on both sides.



Step 7
The triangle flap A part may be used
for a holding position for launching or
can be used as landing gears. You may
use a piece of double sided tape inside
of the tail fin. Bend up the back of the
wing for better flight.
(Optional: If you use the downloaded
patterned sheet, you may cut away

parts of trailing edges as indicated in
the sheet.)



BBVA Compass
뉴멕시코 주에서 은행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한국말을 하는 김미경씨를
만나보세요.

Think getting a mortgage should be
easy? So do we.

Here's an overview of what we can offer you:

- * Professional Program financing up to \$1 million with low down payment for Doctors, Dentists, CPAs and Attorneys.
- * First Time Home Buyer Program make no payment for 3 month, low down payment, and pay no origination or other lender fees
- * Government Loans FHA and VA loans
- * Construction Loans OneConstruction/Perm, Renovation/Perm and Lot Loans
- * Primary residence and second home financing, including noncondos (no condotels)
- * Variety of repayment terms available
- * Super Jumbos financing available up to \$5 million
- * Foreign Nationals (nonresidents) financing available up to \$1 million USD on single family residences and condominiums'
- * Convenience apply online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In addition to simplicity and options, at BBVA Compass you'll get competitive rates and outstanding service. So whether you're buying your first or fifth home, getting your next mortgage will be easier than you ever imagined at BBVA Compass.

Mi Kyong Kim Mortgage Banking Officer
전화번호 505-206-9963
mikyong.kim@bbvacompass.com
www.bbvacompass.com/mortgages/mkim
NMLS# 512561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알버커키 Albuquerque

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

A-1 Oriental: 1410 Wyoming NE ABQ (505-275-9021)
Arirang Oriental: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Dinho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Blvd NE ABQ (505-883-2665)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Fuji Yama: 5001 Central Ave NE ABQ (505-265-9774)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899-0095)

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Korean BBQ: 3200 Central Ave SE ABQ (505-338-2424)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Pacific Rim Asian: 10721 Montgomery NE ABQ (505-271-0920)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6601)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Sizzler: 7212 Menaul blvd. ABQ (505-833-5755)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BQ 87109 (505-797-8000)

Yen Ching: 4410 Wyoming NE, ABQ (505-275-8265)
Yummi House: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건축/페인트 Painting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공인회계사 CPA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5850 Eubank NE, 2270 Wyoming NE, 9411 Coors NE, 1418 Juan Tabo NE, 6124 4th St NW, 1903 Coors SW, 11816 Central SE, 4312 Coors SW, 1649 Bridge SW, ABQ (505-999-8222)
Stadium Liquor 1306 Broadway SE ABQ, NM (505-242-8542)

부동산 Realtors

김영신 Yong Shin Kim: Jade Southwest Realtors (505-321-7695)
수잔리 Susan Lee: Coldwell Banker (505-934-8949)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최귀분 Gui B. Bonaguidi:
The Ingles Company Realtors (505-828-1366)

세탁소 Dry Cleaners

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Executive Cleaners: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66-3231)

신발 Shoes

Rio Shoes: Coronado Mall 6600 Menaul NE ABQ (505-883-9009)

의류 Clothes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BQ (505-884-2202)

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BQ (505-830-9400)
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3420)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1-6355)

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Hair & Co(황경희): 5901 Wyoming Blvd., NE (505-797-8087)

Hair Dynamic(Ashley): 1500 Wyoming Blvd. NE (505-296-2335)

Matthew Lee's Hair Style(홍정희): 11901 Menaul NE (505-271-1056)

Nob Hill Barber Shop (Sunny):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Plance Hair Salon(Tina): 4300 Ridgecrest Dr NW (505-907-9229)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종교 Church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271-8031)

뉴멕시코 성결교회: 2801 Lomas Blvd. NE, ABQ, NM 87106 (505-238-3551)

샌디아 장로교회: 10704 Paseo Del Norte NE ABQ (505-823-1678)

알버커키 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lboquerque (505-803-7716)

알버커키 침례교회: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

주님의 교회: 12120 Copper Ave NE ABQ (505-903-2297)

주택용자 Loan Officer

김미경 Mikyong Kim (Homemortgage) BBVA (Office 505-206-9963)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치과 Dental Clinic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커피 재료 Coffee

Moons Coffee & Tea: 1605 Juan Tabo NE, ABQ (505-271-2633)

태권도 TaeKwonDo

Dynamic taekwondo academy 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 (505) 296-0336

한의사 Acupuncture

Dr. Chang: 4716 Central Ave SE, ABQ (505-710-7504)

Dr. Park: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 #B 87113 (505-514-2900)

화랑 Gallery

Park Fine Art Gallery(박영숙): 20 First Galleria Plaza NW, Suite #27 (505-764-1900)

화원/원예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사진관 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

중재서비스

ADR-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

단요가 Dahn Yoga

알버커키 505-797-2211
커튼우드 505-792-5111
산타페 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틴 505-286-3535
www.dahnyoga.com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리오란초 Rio Rancho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4300 Ridgecrest Dr. SE Suite #O Rio Rancho, NM 87124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io Rancho (505-994-8855)

클로비스 Clovis

종교 Church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Gospel Clovis Full Korean: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62-4510)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성내츄럴: Los Alamos (505-662-9681)

종교 Church

산타페 한인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412-5420)

산타페 Santa Fe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Osaka (Traditional Japa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

종교 Church

New Beginning Church
480A County Rd. 84 Santa Fe, NM 87506
(505-577-4572) (cell 505-577-4572)

겔럽 Gallup

신발 Shoes

Rio Shoes: 1300 I-40 Frontage, Ste 304B, Gallup (505-722-5396)

모텔 Hotel/Motel

Day's Inn: 3201 W. HW66, Gallup (505-863-6889)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공인회계사 ACC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5800) (Fax 575-523-7700)

카페/ 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0098)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

종교 Church

라스크루세스 침례교회:
1441 East Mesa Las Cruces NM 88001 (915-276-2773)

화밍تون Farmington

종교 Church

화밍تون 침례교회: 511 W. Arrington, Farmington (505-453-5461)

가게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방 세놓음

깨끗하게 집을 사용하실 한인분께 집을 세놓으려고 합니다.

주소:
12613 Copperwood Dr NE ABQ NM 87123

월세는 주변 시세보다 약간 더 쌉니다.

625.00+half deposit

2Br. 780 Sqft, laundry hook up ,ref. No pet ,바닥(floor)은 타일로 다 새로 깔았습니다.

꼭 하실 마음이 있으신 분은 전화주시면 보여드립니다.

Tel: 213-507-7985

(우표 값이 61센트에서 64센트로 올랐습니다)
광야의 소리를 1년 동안

집에서 받아 보시길 원하시는 분은
본인 이름 집 주소

64센트 우표 12장

또는 8불 짜리 check를

payable to "KUMC"로 써서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집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If you want to receive this journal by mail, send by mail your name and address to following address with your \$8 check payable to KUMC)
To: Voice in the Wilderness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알버커키 박영숙 화가(www.youngsookpark.com)와 김수영 화가(www.geocities.com/hongsooyoungstudio)의 작품들입니다.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뉴멕시코주 한인회**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505) 271-1777 www.kaanm.com

stamp here

64 cent 우표
붙인 후 밖으로
집어서 발송

To: